

# 生活指導에 있어서 相談의 性格과 機能

吳 暻 鍾

## 〈目 次〉

- I 序 言
- II 生活指導의 性格
- III 相談의 性格
- IV 相談의 接近方法
- V 要約 및 結言

## I 序 言

生活指導는 學生의 學習과 教育에 關한 諸般 問題解決을 돕기 위한 教育指導, 社會的 및 人性的 適應을 돕기 위한 社會的 情緒的 指導, 올바른 宗教發達을 위한 宗教指導, 健康한 身體發達을 위한 健康指導등 生活指導의 範圍는 人間의 全生活를 포함하는 指導와 奉仕로 擴張되어 오늘날의 生活指導는 學生이 하나의 自然人으로서 成長해 가는 全般的인 領域과 問題에 關한 助力과 奉仕이다. 生活指導가 助力과 奉仕라는 뜻에서 볼 때 助力과 奉仕는 비단 生活指導라는 教育的 活動의 어떤한 局面에서만 強調되는 것이 아니라 學校의 모든 教育的 活動 속에 反映되어야 할 教育的인 根本態度인 것이다.<sup>1)</sup>

一般的으로 生活指導의 性格을 論할때 生活指導는 學生 個個人的 自律的 成長을 돕는 助力이며 奉仕라고 규정짓고 있으며 이는 넓은 意味에서 「教育」과 同義語가 된다.

더 나아가서 教育課程을 “教育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學校의 指導 밑에서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經驗의 總體”라고 볼 때는 教育課程과 生活指導는 分離해서 생각할 수 없다.

學習指導를 通하여 學生들이 가지게 되는 經驗, 生活指導를 通하여 學生들이 가지는 經驗은 모두 教育課程이라는 개념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따라서, 學生들이 바람직한 學習經驗을 가질 수 있도록 세워진 教育課程 計劃에 따라 學習指導나 生活指導 活動은 教育目標

1) 李榮德, 鄭元植, 生活指導의 原理와 實際, 서울, 교학도서주식회사, 1971, p.29.

達成을 위한 教育的 過程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넓은 意味의 教育課程 計劃은 좁은 意味의 學習指導와 生活指導를 위한 同一한 基盤을 提供하는 것이다. 그리고 넓은 意味의 學習指導는 理論上 同一한 過程이며 別個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학교 1학년이나 2학년 教師들이 遂行하는 教育的 活動은 多分히 生活指導와 學習指導를 同一한 過程에 두고 있는 좋은 例가 될 것이다. 入學 以前의 家庭教育으로 올라가면 더욱 더 學習指導와 生活指導는 分離해서 어느 것이 어느 편이라고 지적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난다.<sup>2)</sup>

이렇게 보면 教育, 教育課程, 生活指導, 相談活動등을 區分하는 概念的 準據가 모호하게 된다. 實際 一線 學校에서는 學校 全體의 教育活動을 關望하기 위하여 各教師는 教科指導(學習指導) 外的 教育活動에 대한 業務를 분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호 關聯을 갖고 있는 學生課長, 生活指導主任(教導主任), 카운셀러(相談室長)의 業務분장이나 役割에 대한 서로 다른 役割知覺 때문에 學生指導의 業務가 서로 重複되거나 서로 미루는 사례가 없지 않다.

따라서 本稿는 生活指導와 關聯되는 教育活動을 區分지어 밝힘으로써 相談活動의 性格을 分明히 하고 그 機能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 Ⅱ 生活指導의 性格

### 1. 生活指導 運動의 發展

傳統的 教育에서 教育이란 過去의 文化的 遺産을 젊은이들에게 傳達하는 過程이다. 그것은 成人社會에서 自己의 地位를 維持하는데 必要한 知識, 技術, 習慣을 가르쳐 주는 過程인 것이다. 이 過程에서 中心 人物은 教師이다. 學生은 受取人(recipient)이며 되도록이면 受動的이고 복종적이었다. 學生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決定하는 發言權을 갖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었다.

教育은 順從的 態度에 거역하는 行動을 방지하는 過程이었다. 教育課程은 學校가 組織하였으며 그 方法은 學生을 훌륭한 市民이나 모범적인 개인을 目的으로 發展시킨다. 이러한 教育哲學은 금세기 초까지 모든 學校에서 支配的인 見解이었다.

進步的인 教育에서 兒童들은 教育課程의 中心이며, 兒童들의 發達이 主觀心事이다. 그것은 兒童이 어떻게 된단가 社會가 兒童에게 무엇을 要求하고 있는가 보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兒童에게 關心을 기울인 個體의 發達에 對한 學生의 필요나 흥미, 욕구가 優位를

2) 上掲書, p.39.

차지한다. 活動을 위한 衝동은 극히 중요하며 부당히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兒童은 自己가 하는 일에 대해 심지어 自己가 무엇을 공부하는가를 決定함에 있어서 큰 몫을 차지한다. 이런 극단의 경우에는 兒童이 원하지 않는 것은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실패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피해야 한다. 벌과 구속은 부정적이기에 學生에게 전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사용한다고 해도 最小限으로 해야 한다.<sup>3)</sup>

進步的 教育의 共通原理를 傳統的 教育의 特徵과 對比시켜 보면<sup>4)</sup> ① 위에서부터의 賦課對 個性의 涵양 ② 外部的인 訓育對 自由로운 活動 ③ 教科書와 教師로부터의 學習對 經驗을 통한 學習 ④ 反復練習에 의하여 서로 遊離된 技術을 습득하는 것對 生活과 直接 關聯된 어떤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技術을 習得하는 것 ⑤ 다소간 멀리 떨어진 未來를 위한 準備對 現在生活의 機會를 最大限으로 活用하는 것 ⑥ 固定된 教育目的과 學習資料對 變化하는 世界를 잘 알게 되는 것.

비록 이 進步的 教育의 극단적 主張은 점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크다. 아마도 이 哲學의 가장 重要한 主張은 學生 스스로의 活動을 選擇하거나, 生活方途를 선택함에 있어서 個人的 立場을 크게 중시하는데 있다. 비록 나이 적은 어린이에게도 중요한 選擇은 스스로 決定하도록 許容하고 또 고무한다.

大部分 이러한 選擇은 不適當한지 모르겠고 그 選擇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兒童이 選擇한 것을 實行에 옮기는 것을 一次的으로 否定하지 말고 選擇의 分辨을 評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教育的 立場의 根本的 思想은 「生活指導」의 基本的 目的 즉 選擇을 하도록 個人을 도우는 것을 強調한다. 이 選擇能力을 發展시키기 위해서 「生活指導」의 必要性이 強調된 것이다.<sup>5)</sup>

初期의 「生活指導」는 職業과 關聯된 問題가 초점이 되었으며 Frank W. Parsons가 1907년에 美國 Boston에 職業指導運動을 始作한 것이 組織的인 生活指導 運動의 始初라고 보고 있다.<sup>6)</sup>

Parsons의 職業指導觀은 오늘날의 生活指導觀點을 理解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Parsons는 “賢明한 職業選擇을 위해서는 各 個人은, 첫째로 自己自身에 대한 理解와 둘째로 여러가지 職業에 있어서의 成功에 必要한 條件과 資格에 대한 理解와 셋째로 自己自身에 關한 여러가지 事實과 장차 선택하게 될 職業의 條件이나 環境에 關한 事實間의 關係를

3) Arthur J. Jones, Principles of Guidance, Fifth Edition, McGraw-Hill Book Co., Inc., 1963, 김학수, 이윤수(공역), 생활지도의 원리, 서울, 재동문화사, 1977, p.59.

4) John Dewey,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1938, pp.17-23.

5) 金學守, 李潤樹, 前掲書, p.60.

6) 李榮德, 鄭元植, 前掲書, p.62.

推理할 수 있는 能力을 가져야 한다”<sup>7)</sup>는 것이다.

Parsons에 의하여 始作된 Boston市の 職業指導 運動을 계기로 하여 美國 各地에 이와 같은 運動이 擴大되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初期段階에 있어서의 職業指導는 學校 밖의 社會에서 行하여졌고 主導的 役割도 學校밖의 社會機關이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學校밖의 社會에서 始作된 生活指導 運動이 學校속으로 들어오기 始作한 때가 美國에서는 1913年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그 해에 Boston 教育委員會에서 職業情報課를 設置하고 學生과 教師를 위하여 必要的 職業에 관한 情報를 蒐集하고 관리하였다.<sup>8)</sup>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職業指導 運動의 始初는 日帝時代에 大都市에 設置하였던 職業紹介所 活動으로부터 始作되었다고 할 수 있고, 8,15해방 後에도 職業紹介所는 改편되어 오늘날까지 存續되고 있으나 職業指導를 위한 專門的 訓練을 받은 사람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63년에 노동청이 設置되면서 부터 社會에서의 職業指導 活動은 약간 活氣를 띄우기 시작하였다.

學校에 있어서의 組織的인 生活指導 運動은 아마도 1957년에 서울特別市 教育委員會에서 主催한 生活指導 講習會에서 40名の 대상자를 2개월간 教育한 것이 始初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 후 이와 같은 講習會는 서울特別市 教育委員會 主催로 1961年 12월 30일까지 5次的 講習會가 각 2개월씩 있었으며 이 課程을 修了한 延人員이 約 170名에 달한다. 한편 1958年 9월부터 1959年 7월까지 文敎部和 中央教育研究所가 共同으로 生活指導 教師 講習會를 2次에 걸쳐 開催하였는데 이 課程을 修了한 延人員이 182名으로 記錄되고 있다.<sup>9)</sup>

이 以後에도 學校의 生活指導 專擔을 위한 敎導教師의 養成은 계속되었으며 1962年 서울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의 設置, 1963年の 全國 카운슬러 協會의 組織은 名實相符한 카운슬링 運動의 中心的 役割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組織的인 生活指導 運動의 初期에는 人間成長 段階에서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는 職業選擇과 그 準備를 돕기 위한 職業指導에 가장 큰 強調가 주어졌던 것이나, 그 後 生活指導에 관한 專門的 研究와 實踐을 거듭하면서 學校의 生活指導는 職業指導뿐만 아니라 學生의 學習 및 敎育에 관한 諸問題 解決을 돕기 위한 敎育指導, 社會的 및 人性的 適應을 돕기 위한 社會的 情緒의 指導, 올바른 宗教的 發達을 돕기 위한 宗教指導, 健全한 身體的 發達을 돕기 위한 건강지도등 生活指導의 범위는 人間の 全生活를 包含하는 指導 및 奉仕로 擴張되어 온 것이다.

7) A. J. Humphreys and A. E. Traxler, *Guidance Services*, Chicago, Science Research Associates, Inc., 1954, pp. 74-75를 引用한 이영덕, 정원식, 전개서, p. 63.

8) J. M. Brewer, *History of Vocational Guidance*,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42, pp. 80-81을 引用한 上揭書, p. 63.

9) 上揭書, p. 66.

## 2. 生活指導의 性格

初期의 「生活指導」는 職業과 關聯된 問題가 主점이 되었으며 대개 學生의 職業選擇과 關聯되고 있었다.

靑少年들이 選擇의 基礎로서 스스로의 經驗을 이용하려 할 때 그들의 經驗의 폭이 넓지 못하고 多様하지 못하다는 事實은 그들의 缺点이다. 그와 같은 바탕에서 이룩된 選擇은 훌륭한 것이 못된다는 것이 確實한데도 그들은 위험을 가감 意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能力으로서의 지나친 自信心과 靑春의 熱情으로서 조금하고 賢明치 못한 決定을 내리는 것이다. 數年後에 卞生을 두고 일할 職業이 그들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事實은 너무 늦게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비록 그들이 過去의 初期 選擇이 不幸했다는 事實을 안다고 해도 現在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賢明한 「生活指導」는 靑少年들에게서 自己의 經驗이 適當한 展望을 예측하는데 너무 制限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데 큰 가치가 있으며 그들의 能力과 興味에 맞는 職業의 全領域을 檢討하는데 도움을 준다.<sup>10)</sup>

學生들이 學校나 職業에의 適應을 위해서 關聯되는 問題는 많으며 또한 學生들은 적응을 위해서 選擇을 행하여야 한다. 이 選擇을 위하여서는 이미 획득한 知識의 再組織을 必要로 하는데 그와 같은 再組織은 가감 누구의 助力없이는 個人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다.

學生이 選擇, 適應, 判斷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과 關係되는 일은 學校의 모든 部分에 內在하고 있으며 傳統의인 教育에서는 學校에서 組織되어 있는 教育活動外에 아직도 적당하게 組織되어 있지 않은 적응, 選擇의 문제영역이 많다. 例를 들면 ① 義務教育의 始末 ② 初等學校의 卒業時 ③ 中等學校의 始末 ④ 中學校의 卒業時 ⑤ 高等學校의 入學時 ⑥ 高等學校의 卒業時 ⑦ 大學 入學時 ⑧ 어느때든 학교를 그만 둘 때 ⑨ 취직시, 이력 때의 選擇과 적응은 극히 중요하며 특수한 助力形態가 必要的 것이다. 賢明한 選擇을 필요로 하는 여러 事實들은 學校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도외시 되고 있다. 많은 習慣, 態度, 必要的 理想 등이 겨우 間接的으로 가르쳐지고 있다. 學校가 이런 必要를 考慮하야 情報, 習慣, 態度, 興味를 마련해 주는 活動(가이던스)이 必要했던 것이다.<sup>11)</sup>

따라서 生活指導는 問題를 解決하고 적응과 選擇을 하게 하는데 한 사람이 他人에게 주는 助力으로서 生活指導의 目的은 兒童學生에게 責任을 지는 能力과 獨立性を 양성하는데 있다.

生活指導를 이렇게 “他人에게 주는 助力”으로 理解할 때, 生活指導가 關係하는 對象問

10) 金學守, 李潤樹, 前揭書, pp.15-16.

11) 上揭書, p.37.

에 의해 他活動과 구별될 수는 없다.

“指導助言 教育課程 發展을 위한 協議會의 1955年度 年報”(1955 Yeas book of the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이란 책에서 teaching과 Instruction을 兒童의 學習에 주어지는 도움이라 定義하고 그것이 根本的으로 「가이던스」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가이던스」란 새로운 場面에 接하여 問題를 解決하고 適應하리라는 個人에 對한 助力이기 때문이다. 이 問題의 어떤 것은 職業과 關係되고 어떤 것은 社會와 關係하며 또 어떤 것은 教科履修와 關係하고 있다.<sup>12)</sup>

그러면 넓은 意味의 教育과 生活指導를 區分하는 概念的準據는 무엇인가? Arthur J. Jones<sup>13)</sup>는 教育과 Guidance와의 關係를 論할 때 相異한 見解는 「教育」의 뜻을 解釋하는 方式의 差異에 기인한다고 했다. 그는 「教育」의 뜻을 해석하는 各인 다른 立場을 세가지로 分類하였는데 教育이란 보통 ① 個體 內部에서 일어나는 變化의 過程 ② 知育 ③ 社會的으로 有用하고 個人的으로 滿足스러운 生活를 할 수 있도록 個體의 身體的, 精神的, 情緒的, 道德的 成長을 指向하거나 引導하기 위한 社會의 意識의 努力인 것이다.

教育을 個體 內部에서 일어나는 變化의 過程으로 본다면 教育은 個人의 必要한 變化를 이룩하게 하는 過程이라 할 수 있다. 이 見解에 의하면 教育은 本質的으로 完全히 個人的인 過程으로서 個人이 行하는 어떤 結果로서 個人內部에 일어나는 어떤 變化이며 또 “감정이나 意識속에 世界를 創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各 個人은 自己自身을 위하여 個人이 살고 있는 世界를 創設한다. 그의 記意, 思想, 思想이나 感情과 理念은 그 個人의 行爲에 基礎하는 獨自的 經驗에서 형성되어진 독특한 것으로서 누구도 이를 分與할 수는 없으며 또 自己 意思에 反하여 이를 제거할 수도 없다.

이런 見解에 따라 教育을 고려하면 「가이던스」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가이던스」는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주는 助力을 意味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眞實로 獨學이 가능하면 「가이던스」는 있을 수 없다.

教育을 知育으로 해석할 경우에 教師는 늘 成就되어야 할 目的을 알고 있다. 教師는 또한 目的을 成就시킬 最善의 方法, 말하자면 兒童이 效果的 學習을 達成하는 最善의 方法을 알고 있다. 傳統的 教育에서 교수(teaching)라고 하는 概念에서의 教師의 役割은 비교적 명백하고 간단하다. ① 教師는 가르쳐야 할 것을 마음 속에 분명히 가져야만 했으나 아동이 이를 알고 있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② 教師는 教科書, 資料, 概念, 問題 등의 형태로 學生들의 바람직한 반응을 하게끔 꾸며진 자극을 가져야만 한다. ③ 教師는 兒童이 바람직한 반응을 하도록 하는 방도를 알아야 한다. 아동이 만일 잘못 반응하게 되

12) 上揭書, p. 34.

13) 上揭書, p. 21.

면 별과 같은 수단을 써서 다른 반응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한다. ④ 教師는 作品, 技術, 習慣, 態度등을 「테스트」하여 그 目的이 實際로 達成되는가를 調査해야만 한다.

위와 같은 學習活動에서는 教師의 統制가 支配的인 것으로서 個人 自身은 計劃에 참여하지 못하고 學習者は 단지 受動的이며 아무런 선택의 여지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이런 過程에서도 「가이던스」는 발붙일 곳이 없다.

다행히 새로운 教授方法은 아동을 도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兒童은 그 過程에서 능동적인 行爲者이다. 비록 아직도 教師는 이룩하게 될 目的을 大部分 自身이 決定하고 있으나 教師는 兒童이 그 目的을 理解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도록 도우고 있다. 그와 같은 方向으로 助力하는 것이 바로 「가이던스」이다. 즉 學習過程에서 教師가 學習者에게 選擇을 도울 때는 언제나 「가이던스」는 존재한다.

教師가 社會의 代理者로서 兒童에게 達成해야 할 目標를 設定하게 된다 하더라도, 論理的으로 여러 兒童이 目的에 到達하는 方法은 多様할 것이다. 有能한 教師는 兒童이 가장 적합한 것을 發見하도록 끊임없이 도우며 애쓰는 것이다. 教師가 方法을 選擇할 경우는 教授는 있지만 「가이던스」라고는 할 수 없다. 教師가 方法을 선택하도록 助力할 때 비로소 「가이던스」는 있는 것이다. 目標에 到達하는 過程(學習)에서 兒童이 도움을 必要로 할 때는 언제나 도움을 주는 것이 教師의 기능이다. 이러한 助力은 概說, 參考資料, 유도 질문, 승인과 불승인의 표현, 자극(incentive)등과 같은 형태이며, 이는 教授—學習過程에 포함되는 內容으로서 이런 活動들이 教師主導로서 아동이 受動的일 때 教授(teaching)는 있어도 가이던스는 될 수 없다. 그러나 兒童에게 目標나 方法을 選擇하도록 원조한다고 생각되는 教授는 바로 가이던스가 된다.

教育을 社會的으로 有用하고 人的으로 만족스러운 生活을 할 수 있도록 개체의 身體的, 精神的, 情緒的, 道德的 成長을 指向하거나 引導하기 위한 社會의 意圖的 努力으로 볼 때 가이던스와 教育은 가장 밀접한 關係를 갖다.

여기서 “意圖的 努力”이란 말은 兒童을 被動的으로 解釋할 때 거기에 相反되는 뜻으로 쓰여서는 안된다. 여기서의 意圖的 努力은 個人의 有目的 生活을 위해 個人을 도우는 努力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社會가 兒童의 적합한 成長을 위하여 選擇하고 組織한 物理的, 社會的 環境이나, 커리큘럼, 教科書, 圖書館, 實驗室등 學校의 組織화된 生活은 兒童을 어느 方向으로 發達시키는 때 必要하나 그것은 극히 기계적인 助力이다. 「가이던스」를 個人이 計劃에 參與하는 일과 같이 다소 個體的 獨立된 行爲가 內包되었을 때 적용되는 概念이라면 위의 것들은 전혀 助力이라고 볼 수 없다. 물을 주어서 植物이 자라나도록 돕는다거나, 어린이가 세수를 하여 깨끗하도록 하는 것이 도운다고 할런지 모르나 이와 같은 말에서의 助力이란 말은 잘

못 해석된 개념이다. 이 기계적인 助力은 비록 그것이 個人的 發展을 決定하는데 도움이 되고 兒童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해도 그 過程에 個人自體가 어떤 役割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라고 할 수 없다.

教育課程, 學習指導, 生活指導가 分離할 수 있고 또한 分離된 것으로 취급하게 된 重要한 理由로서 정원식과 이영덕은<sup>14)</sup>

첫째 教育課程을 學校에서 가르치는 教科의 知識內容으로 생각하고, 學習指導를 그 計劃된 知識內容을 효과적으로 傳授하는 過程이라고 생각하는 傳統的인 教育概念이 아직도 支配的이기 때문이다.

教育課程을 學校의 教科課程으로 생각하며, 學習指導를 一定한 知識內容을 傳授하는 過程으로 생각하는 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즉 教科學習의 범위를 넘어 선다고 생각되는 學生들의 成長, 生活適應에 關係되는 指導를 담당할 프로그램으로써 生活指導를 하나의 獨概된 活動分野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둘째 生活指導는 學校의 特別한 教育的 機能이며 特定한 訓練을 받은 專門家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生活指導의 概念은 새로운 教育的 觀點을 基礎로 하는 것이다. 모든 人間은 一定한 成長 可能性을 가진 有機體로써 全體 環境과의 力動的 相互作用의 過程을 通하여 成長하여 간다. 民主社會는 모든 個人的 最大限의 成長과 그로 인한 社會에의 各個人의 독특한 공헌을 중요시 한다. 人間의 最大限의 成長은 그 人間 有機體의 知的, 身體的, 情緒的, 社會的 全面을 包含하는 全人으로서의 調和된 成長을 前提로하며, 人間이 지닌 內在的 要求와 目的의 自律的이고 건전한 方法을 通한 充實에 依서해만 實現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基礎위에서 生活指導는 各個人의 自律的 成長을 돕는 奉仕의 意味를 지니며, 그 助力 혹은 奉仕는 그 重要한 對象을 個人學生에 두는 것이다. 教育課程 計劃, 學習指導, 生活指導는 서로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으며, 相互 內包하고 相互 補充하는 全體 教育的 過程의 統合的 部分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 Ⅲ 相談의 性格

#### 1. 相談의 目的

相談指導 즉 Counseling이란 말은 元來 라틴어 Consulere에서 由來한다고 하며 그 뜻은 考慮한다, 熟考한다, 反省한다, 助言을 請한다, 相談을 한다는 뜻이다. 英語에서 Counsel

14) 李榮德, 鄭元植, 前掲書, pp.39~41.



이란 뜻은 法律, 經濟, 宗教등의 領域에서 辯護士, 고문, 助言者란 뜻으로 使用하였다고 한다.<sup>15)</sup> 그러나 오늘날 학교에서 말하는 相談指導 즉 Counseling으로 解釋이 된 것은 美國의 Williamson이 1939年 著述한 「How to Counsel student」로 부터 비롯된다.<sup>16)</sup> 그러므로 相談指導는 生活指導 運動中에서 훨씬 뒤늦었으며 Guidance의 한 領域으로 登場하여 많은 專門家들이 그 意味에 關하여 각각 多樣하게 定義를 내리고 있다.

Williamson은 「Counseling은 一時的으로 各 個人의 適應을 도움 뿐만 아니라 장래 適應을 準備하도록 돕는 것이다」<sup>17)</sup>라고 하였으며 Hahn과 Maclean등은 「心理學的 相談이란 혼자서 解決할 수 없는 問題로 因하여 困難을 당하고 있는 個人과 個人이 이러한 諸般 個人의 困難을 解決하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訓練과 經驗을 가진 專門家와 1對1의 關係에서 생기는 過程이다」<sup>18)</sup>, Rogers는 「個人이 態도와 行動을 變化하는 데 도움이 될 목적을 가진 個人과의 一連의 直接的인 接觸」<sup>19)</sup> Strang은 「카운셀링은 가장 받아들일만한 自我(acceptable self)를 發展시키는 데 있어서 또는 個人的 問題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必要로 하는 個人에게 受容의인 분위기에서 自己自身에 關해 생각함으로써 洞察力을 얻을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해 주는 對面關係(face to face relationship)」<sup>20)</sup>이다.

McDaniel은 「카운셀링이란 自己自身과 그 環境에 대하여 보다 效果的인 適應을 하도록 助力해 주는 사람과 그러한 助力을 받는 사람 사이에 갖는 일련의 直接的이고 連續的인 접촉을 말한다」<sup>21)</sup>

Roeber, Smith 및 Erickson은 「카운셀링의 가장 중요한 目的의 하나는 개개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의 生活環境에 보다 效果的으로 適應하도록 助力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온당한 정도의 適應狀態를 維持하고 있거나 혹은 그러한 狀態로 回復되어 가고 있다면 그는 自己가 당면하고 있는 問題를 해결하고 또 그 밖의 여러가지 狀況에 대하여 스스로 올바른 선택과 決定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22)</sup>

15) 孔錫英, 生活指導 相談論, 學文社, 1973, p.114.

16) 조운재외, 학교 카운셀링의 이론과 실제, 경남교육위원회편, 1966, 9, 10.

17) E.G. Williamson, Counseling Adolescents, N.Y., McGraw-Hill Book Co., 1950, p.211.

18) M.E.Hahn and M.S.Maclean, Counseling Psychology, N.Y. : McGraw-Hill Book Co., 1955, p.6.

19) C.R.Rogers,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Y. : Houghton-Mifflin, 1942, p.5.

20) Ruth. Strang, Counseling Techniques in Secondary Schools and Colleges, 을 인용한 鄭喜卿, 학생상담의 기술, 서울, 현대교육총서, 1970, p.20.

21) H.B.McDaniel, Guidance in the Modern School, New York : Dryden Press, Inc., 1956, p.120을 인용한 변창전외 2인(공역), 學校相談의 事例研究, p.22.

22) Edward C.Roeber, Glenn Smith and Clifford Erickson,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Guidance Services, New York : Mc Graw-Hill Book Co., Inc., Second Edition, 1955, p.8을 인용한 上揭書, p.22.

Johnson, Steffe 및 Edelfelt는 「카운셀링이란 特殊한 專門的인 資質과 能力을 가진 사람이 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自己自身과 그 環境에 대하여 보다 精確한 理解를 갖도록 助力하고 또 ② 그로 하여금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問題의 適當한 해결 途 徑을 保障하는데 必要한 여러가지 決定을 스스로 責任있게 하도록 격려하는 과정이다.<sup>23)</sup>

Evraiff는 學校相談은 다음과 같은 過程을 展開하는 것이다 했다.

① 學生으로 하여금 自己의 感情이나 걱정거리라고 생각되는 問題를 거리낌없이 털어놓게 한다.

② 그러기 위하여 카운슬러는 受容의 態度 無批判的인 분위기를 만든다.

③ 그래서 學生이 점차 自己指導的(self directive)이 되어 자기 주변 의 制限 問題를 靈活히 다루어 나가게끔 할 수 있는 關係를 형성시킨다.<sup>24)</sup>

위의 定義들은 大部分 相談의 特性을 하나의 過程으로 理解하고 있다. 또한 相談過程의 核心은 人間關係이고 相談의 目標은 그러한 人間關係의 結果로서 達成된다. 機能的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相談은 어디까지나 教育活動의 場 域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相談目的은 궁극적으로 教育目的과 一貫性을 維持해야 하며 고디 具體的 水準에서는 生活指導의 目的과 一致되어야 한다.

生活指導의 目的은 結局 모든 學生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問題를 스스로가 解決할 수 있는 能力을 지니도록 하기 말하면 自己指導力을 가지도록 이끌어 주고, 指導해 주고, 자극해 주고, 촉발시켜 주는데 있다.

따라서 相談의 目的은 人間의 成長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이를 제거하고 극복하고 最 適의 人間發達을 成就하도록 個人을 도와주는 것이다.

## 2. 相談의 性格

相談의 定義들을 分析해보면 積 극적 접근과 소극적 접근으로 區別할 수 있겠다. 積 극적 접근은 相談의 目標에 있어서 自己決定力, 選擇能力의 함양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넓게는 教育의 目的과, 좁게는 生活指導의 目標과 一致하고 있다.

그러면 生活指導와 相談을 區別짓는 準 據는 무엇인가? 生活指導와 相談의 定義를 통하여 볼때 生活指導와 談相을 區別짓는 準 據는 目標과 대상의 差異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指導의 過程이나 方法의 差異에서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生活指導는 相

23) Walter Johnson, Bufford Steffe and Roy Edelfelt, Pupil Personnel and Guidance Services, New York: McGraw Hill Book Co., Inc., 1961, p.294.

24) William Evraiff, Helping Counselors Grow Professionally, N.J.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Inc., 1963, p.23.

談活動을 하나의 方法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相談活動은 生活指導의 効果적인 役割遂行을 위한 集中的인 努力으로 方法上의 特長으로 보아 生活指導의 目標達成을 위한 中核的인 活動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相談의 性格은 그 目標나 대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 方法上의 特長에 의해 결정지을 수 있겠다.

相談의 소극적 접근은 相談의 目標設定에 있어서 相談 自体의 具體的 目標를 가지고 接近하는 것이다. 生活指導의 目標가 一般的이고 包括的 임에 비해서 相談의 目標를 具體的으로 設定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즉 相談의 대상을 특정한 問題에 限定하여 생각하는 立場이다. 혹은 상담의 目標를 不適應 行動의 矯正이나 人性要因을 治療하는데 그 目標를 두고 있다.

위 두 接近의 差異는 學校相談과 精神治療와의 差異에 대한 論議에서 그 代表的인 例를 구할 수 있다.

學校에서 치료적 상담(Therapeutic Counseling)이란 概念을 갖게 된 것은 60년도 못 된다. 20世紀에 접어들어 生活指導 活動이 始作되면서부터 가이던스의 軸점은 學生들의 職業準備를 도와주는 職業指導에 있었고 活動의 目的은 調和的인 職業的 및 教育的 적응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 당시의 活動이란 大學 進學生을 위해서는 進學을, 그리고 상과나 일반 과정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취직을 하는데 助力해 주는 것이었다. 가이던스, 카운슬러는 “思考를 하는 사람”이었으며 指示를 하기도 했다. 그는 職業的, 教育的 情報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으며 解答를 갖고 있는 專門家이었으며 더구나 그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라는 決定을 내려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生活指導의 概念이 넓게 퍼지게 되었으며 이리하여 카운슬러는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職業指導의 根本的 前提는 學生들은 적당한 思考나 精確한 情報를 받음으로서 自身들의 職業的 問題나 教育的 問題를 解決하리라는 것이다. 이 活動은 主로 知的인 것을 다루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치료적 상담이란 주로 情意的인 것이며 人間行動의 情緒的 面에 關心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치료적 상담은 청년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정상적인 人間을 취급하는 過程인 것이다. 來談者와 카운슬러의 關係는 來談者의 情緒의 성숙을 촉진하는 치료적인 關係인 것이다. 그런데 치료적 關係를 갖는다고 반드시 정신적 질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 기능의 來談者와 카운슬러간의 치료관계는 예방적인 面에서도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sup>25)</sup>

敎導敎師들은 정신치료의 기저가 되는 人性理論에서 자기들의 相談技術을 어느정도 發展

25) 李相魯, 金濼採(공역), 來談者中心의 學校相談,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1972, p.145.

시켜왔다는 것도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學校相談과 精神治療를 同一한 意味로 해석하여 뜻밖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Arbackle<sup>26)</sup>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來談者 中心의 카운슬러는 相談과 精神치료는 동의어라고 가정하는 점에서 다른 카운슬러들과 약간 見解를 달리 하고 있다. 말하자면 來談者 中心의 카운슬러는 精神治療가 相談에 비해서 사실 한층 심층적인 것도 아니며, 또 精神的인 고민 문제로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부류와 범위를 가지고 카운슬러와 精神科 의사를 區分할 수도 없으며, 카운슬러와 精神科 의사를 區分지을 수 있는 유일한 尺度는 오직 그들이 갖고 있는 資質과 能力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來談者 中心의 카운슬러는 相談이 주로 意識的인 問題를 취급하고 있는데 비하여 精神治療는 無意識的인 問題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基準으로 하여 相談과 精神治療를 구분지으려고 하는 見解에 대해서도 모순성을 지적하고 있다. 意識的인 것과 無意識的인 것을 정확하게 둘로 갈라 놓을 수 있는 限界線을 찾는다는 것이 不可能하고 또 설혹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할지라도 精神病 환자가 無意識的인 것에 關係되어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소위 “正常的”인 來談者들도 無意識的인 것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 問題에 關하여 Tyler<sup>27)</sup>는 다음과 같이 自己의 見解를 밝히고 있다.

「다소 緩曲한 이야기일는지 모르겠으나 相談이란 名詞은 精神治療의 동의어로 마구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어떤 명백한 구분을 지어놓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精神治療의 목적은 個人의 性格變容에 있으나 相談은 궁극적으로 한 人間을 變化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當面問題를 해결하는데 自己의 資力을 충분히 活用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一種의 助力過程으로 區分지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相談을 통하여 우리들이 노리는 成果는 來談者가 스스로 그 自身을 위하여 必要的인 建設的인 行動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學校相談은 깊은 情緒的인 障礙를 갖고 長期的인 도움을 요하는 學生을 다루는데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學校相談은 自己自身과 自己 주위의 환경에 대한 知覺이 理性的인 現實과 遊離된 그런 學生에게 專門的인 도움을 주려는 것도 아니다.」

Garrett<sup>28)</sup>는 「面談者가 來談者의 問題 核心을 完全히 알게 되었다고 해서 곧 그것을 來談者에게 명백히 認識시켜야 할 必要的인 조금도 없을 경우가 흔히 있다. 面談者가 意圖하는대로 來談者의 性格을 천지히 變容시킬 수는 없으며 설혹 그것이 可能하다고 해도 실제

26) Dugald S. Arbackle, Pupil Personnel Services in American Schools,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62, p.170을 인용한 번창진의 2인, 前掲書, p.19.

27) Leona E. Tyler, The Work of the Counselor, New York: Appleton Century-Crofts, Inc., Second Edition, 1961, p.12을 인용한 上掲書, p.20.

로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來談者가 자기의 當面 問題의 諸般原因에 대해서 相談者가 그것을 發見, 理解하고 있는 그대로 아주 명백히 알지 아니 하고서라도 다만 來談者 自身の 行動이나 態度의 一部를 아주 조금만 變化시키므로써 스스로 自己에 관한 여러가지 決定을 바르게 내릴 수 있고 또 自己의 問題를 쉽게 극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든 敎導敎師는 各白의 相談理論에 대하여 비교적 恒常性 있는 자기나름의 확고한 信念을 發展시켜야 한다. 學校라는 特殊條件은 카운슬러로 하여금 상당히 多樣한 役割을 要求하게 되고 따라서 대체로 절충적 方法의 사용을 불가피하게 한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方法을 채택했던 敎導敎師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하여 그것을 선택한 理由를 自信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學生들과 個別的인 접촉을 통해서 그 學生과 함께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內容인가? 모든 카운슬러는 自身이 갖고 있는 相談原理와 技術에 대하여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기의 原理와 技術을 修正해야 한다.

## IV 相談의 接近方法

### 1. 精神分析學的 접근

精神分析學的 接近이란 Sign ond Freud의 Personality의 理論에 근거를 둔 接近方法이다. 즉 personality理論이란 力動理論(dynamic theory)를 意味한다. 1880年代에 當時 神經不安症이라고 불리는 一種의 精神疾患에 대하여 力動的인 接近을 試圖하였고 衝動理論을 發展시키면서 精神障礙者에 대한 精神分析學的인 接近을 試圖하였다.

精神分析學的 理論<sup>28)</sup>에는 크게 세가지 要素가 包含되어 있는데 첫째는 personality와 人間本성에 관한 一般理論이다. 이것은 人間行動을 說明하기 위한 理論으로 發達の 유전인 자적, 動機誘發的 및 構成的 假說을 強調하는 것이다. 여기에 代表的인 概念은 自我, 超自我의 概念과 快樂主義 또는 現實主義와 같은 原理 및 無意識, 幼兒期の 性慾Libido, 에디프스콤플렉스(Oedipus Complex)등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Freud가 樹立한 personality理論의 全般이며 이 속에 personality의 構造, 發達, 力動性에 대한 Freud 自身の 見解가 나타나 있다. 둘째는 方法論的인 것이다. 精神分析學的 接近에 의하면 자유연상(free

28) Annette Garrett, Interviewing, Its Principles and Methods, New York: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1942, p.49.

29) C.S.Hall & G.Lindzey, The ics of Personality. (and ed.), N.Y: John Wiley & Sons. Inc., 1970, pp.29-77.

association), 꿈의 해석(analysis of dream)과 같은 方法을 써서 患者로부터 깊이 숨어 있는 行動의 原因이 될만한 자료를 끄집어 내고 그 자료를 기초로하여 推理하고 解釋하는 過程이 包含되어 있는 것이다. 셋째는 治療의 理論으로서 특히 治療기간 중에 治療者와 患者사이에 무엇이 일어나는 가를 重視하는 理論이다. 轉移현상, 患者의 저항, 解釋의 時期와 使用, 治療의 障礙의 逆轉移등이 問題가 된다.

이와 같은 Freud 精神分析學의 理論에 대하여 그 傳統은 維持하고 있는 一部の 학파도 있지만 大部分 傳統의인 理論에 反旗를 들고 所謂 新Freud 학파라고 알려져 있는 새로운 理論을 展開하게 되었다. 最初의 離脫者는 Karl Jung이고, 人間動機의 獨特性과 個別化로 向하는 努力을 重視하므로서 對立되는 立場을 취하게 되었다. Adler도 人間の 有目的의인 行動을 強調하므로서 역시 離脫한 사람이나 근본적으로는 不適應行動의 治療의 實際에 있어서는 Freud의 影響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最近에 와서 Sullivan, Horney, Fromm 등은 人間の 行動에 미치는 文化社會의 關係를 強調하는 傾向이 매우 되었고 흔히 세 사람의 社會文化的 關係를 強調하는 立場을 新 Freud학파라고 부르고 있다.

Freud 力動的 理論을 근거로한 不適應行動의 心理療法(psychotherapy)에 따르는 條件들은 살펴 보면

#### 1) 精神分析學의 궁극적 目標 :

- ① 無意識 속에 억압된 것을 자유연상의 方法을 통해 意識의 水準까지 끌어 올린다.
- ② 자기각성을 擴大하여 自己評價의 思考, 現實의 要求의 均衡을 맞게 해주는 일
- ③ 論理정연하게 회피(avoidance)하지 않으면서 思考할 수 있게 한다.

#### 2) 治療者(therapist)가 될 수 있는 條件 :

- ① 心理的 Energy와 그 作用, 行動의 力動性에 대한 理論의 知識이 있어야 한다. 즉 力動理論, 衝動理論, 精神分析學理論에 밝아야 한다.
- ② 반드시 자기 자신이 分析받음으로 해서 자기를 더 잘 理解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Neurosis를 고쳐야 한다. 이것은 治療者가 되기 위한 宿題이며 이렇게 해서 治療者는 보다 完全할 수 있어 治療가 가능한 것이다.
- ③ 經驗을 통하여 分析에 능숙해야 한다.
- ④ 자유연상의 基本原則을 알고 患者에게 자유연상을 하도록 지시하는 일 즉 “생각나는 대로 무엇이든지 말하라” 하면서 適當한 指示를 할 줄 알아야 한다.
- ⑤ 患者의 反應은 아무런 關係가 없는 것 같은 것이라도 빠짐없이 전부 받아들여야 한다.
- ⑥ 精神分析을 받는 동안 자유연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治療者는 患者의 正面에 보이는 것을 피해야 한다.

### 3) 治療 方法

① 최면술(hypnosis) : 精神分析에서는 예컨대 現在の 30세가 된 사람의 不適應行動을 分析하고 治療하고자 할 때 原因을 알기위한 진단(diagnosis)를 해야 한다. 이 때 Drive theory 나 Dynamic theory에서는 그 原因을 幼少時의 時期에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30세의 立場에서 4~7세의 어린 時節의 記憶으로 끌고 내려가야 하는데 記憶을 해 낼 수가 없으니 Hypnosis를 걸어 幼少時에 도달하게 하는 方法이다. 이 Hypnosis를 사용할 때 患者는 受動的이고 治療者가 外部에서 暗示하고 指示하는데 急性患者는 최면술에 잘 걸리지만 만성환자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② Pressure technique : 患者 스스로가 어렸을 때의 일을 記憶해내서 줄줄 말 할수 없으니 여기에 強壓의으로 “생각해내라” “생각해봐라” 하면서 壓力을 주는 方法이다. 이렇게 壓力을 주면 생각 해낼 수가 있다고 한다.

③ 자유연상(free association) : 자유연상의 기술이나 方法은 分析을 할 때의 보다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는 方法이다. 자유연상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며 解釋(interpretation)의 기술에 의해서 治療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精神分析學的 理論에서의 問題(problem)는 ① 治療者는 알 수 없는 患者自身만이 보고 알고 있는 問題와 ② 治療자와 患者 두사람 모두가 못보고 알지 못하는 문제를 취급하게 된다.

要約하면 精神分析 理論은 精神病은 滿足시키려는 欲求를 現實世界에서는 不安해서 抑壓한 結果 欲求가 潛跡하여 이루어진 精神狀態라 보고 抑壓된 部分을 表出해서 現實에서 id, ego, superego가 調和를 갖추도록 精神世界를 再構成하여 治療하는 理論이다. 이러자면 먼저 抑壓한 部分이 무엇이고 어떤 過程으로 抑壓이 되었으며, 어떤 通路를 거쳐야 抑壓된 部分이 表出될 것인가를 力動的으로 把握하여, 抑壓된 部分을 除去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現實에 맞게 生活하도록 治療하는 것이다.<sup>30)</sup>

精神分析에서는 異常行動은 發達過程에서 固着되었다고 본다. 現實生活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니까 感情이 抑壓되고 抑壓된 것이 無意識으로 되어 意識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無意識을 意識化시켜 意識에 無意識이 영향을 주는 方向과 強度를 알아(自由聯想이나 꿈의 分析)스스로 自己意識을 조절하고 無意識의 영향을 減少하도록 治療를 하는 것이다.

## 2. 自我理論的 接近

1942년에 Rogers가 相談과 心理療法(Counseling and psychotherapy)이라는 著書를 發表한 後에 情緒的 障礙者에 대한 治療의 方法으로서 自我理論的 接近이 登場하게 되었다.

30) 洪性華, “정신분석과 행동치료”, 학생연구 15권2호,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1979, p.81.

Rogers의 이 自我理論의 接近은 그 후 1950년에 來談者 中心療法(Client-Centered Therapy)<sup>31)</sup>이라는 書籍이 出版됨에 따라 좀 더 補強된 理論으로 發揚하게 되었고 그 후 自我理論의 接近은 一名 人本主義 心理學(Humanistic psychology)의 接近으로 알려져 있다. 이 自我理論의 接近方法은 우리나라에 比較的 널리 소개된 接近方法으로서 特別 學校의 カウンセ러에 의해 廣範圍하게 使用되고 있다. 自我理論의 接近方法은 比較的 程度가 심하지 않은 情緒的 障誤나 適應問題를 돕는 立場에서 出發했으나 近來에 와서는 程度가 심한 適應問題나 심지어 精神分裂症과 같은 심한 精神病의 治療에도 效果가 있다는 증거가 一部 提示되고 있으므로 그 適應의 범위가 擴大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位置에 놓여 있는 自我理論의 接近方法의 몇가지 특징을 보면

① 自己의 行動이 왜 일어나는지 患者는 알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으므로 自己를 促進하는 行動을 할 수 있고 自己行動을 評價할 수도 있다.

② 人間의 本性은 生得的으로 善하다는 것을 가정한다. 性善說을 인정하기 때문에 充分한 條件만 形成된다면 좋은 本性은 완벽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③ 人間의 行動은 目的志向의이다. 行動이 目的을 向하여 自我實現의 可能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역시 充分한 條件만 形成된다면 카운셀링은 되는 것이고 아무런 技術도 必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④ Counseling room에서 患者는 自己가 自己를 變化시킨다. 즉 카운셀링의 條件을 形成시켜 놓았을 때 カウンセ러의 指示를 받고 變化되는 것이 아니라 自己自身の 힘에 의하여 그 분위기와 環境속에서 變化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自然히 카운셀링의 方法은 指示的 相談이 아니라 非指示的 方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⑤ Therapy는 科學的이어야 한다. 즉 심리치료는 主觀的(subjective)으로 해야 하지만 治療에 관한 研究는 客觀的으로 해야 한다.

自我理論의 接近方法의 相談에 있어서 치료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 理論은 근본적으로 患者自身이 成長할 수 있고 目的志向의인 實現可能性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치료자는 이와 같이 本性이 들어날 수 있도록 環境과 條件만 갖추어 주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精神分析學의 接近에서 特別 人間性의 力動理論, 衝動理論을 충분히 理解하는 또 치료의 技術을 發揮하는 專門家이어야 한다는 점은 달리 理論이나 知識은 不必要하며 그대신 풍부한 經驗과 理解心과 아량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非專門家도 된다는 것이다. 原因을 診斷하고 行動을 解釋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高度의 知識과 技術은 必要하지 않으나 풍부한 經驗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료과정도 自我理論의 接近에 따르면

31) C.R.Rogers, Client-Centered Therapy, New York, Houghton Mifflin Co., 1951.



- ① 一切의 行動의 診斷을 하지 않는다.
- ② 一切의 行動의 評價도 하지 않는다.
- ③ 다만 理解(understanding)만이 充分要件이다.

相談活動에 있어서의 技術(technique)은 오로지 치료분위기(therapeutic condition)를 助成할 수 있고 維持할 수 있으면 된다.

### 3. 行動修正理論의 接近<sup>32)</sup>

行動治療는 異常行動은 學習이 잘 못 이루어진 結果(즉 學習의 結果)라 보고 그 異常行動治療는 pavlov의 古典의 學習理論에 따라 異常한 行動은 賞을 주지 않아 罰을 주고, 또는 補強을 하지 않아 脫條件形成(deconditioning)시킨다. Skinner의 學習理論에 따라 行動을 바람직한 方向으로 補強하고 바람직 하지 못한 行動은 消滅시키어 異常行動을 治療한다. Gestalt 理論에 따라 全体 場속에서 문제의 原因을 把握하고 그 問題의 解決點을 찾아 나간다.<sup>33)</sup> 治療는 計劃下에서 이루어진다. 治療者는 患者의 行動을 具體적으로 細密히 把握하고, 그 把握한 토대 위에서 治療計劃을 짚는다. 바람직한 行動을 하면 즐거움을 수반시켜 바람직한 行動을 하는 습관을 갖도록 條件形成하고 또는 고쳐야 할 行動을 하면 고통을 주어 그 行動을 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먼저 行動에서 즐거워하는 性質과 싫어하는 性質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患者가 숨겨두었던 行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方法중에는 비유를 하거나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치료자가 演出하거나 자기 주장이 나올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患者의 行動을 파악하고 파악한 토대 위에서 더욱 자기 주장을 파악하도록 분위기를 造成하고 自己主張을 격려하고 너무나 不安하여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을 때는 筋肉의 緊張을 푸는 方法, 呼吸을 安定시키는 方法등을 사용하기도 하여 体系的으로 感情을 弛緩시키거나 不安을 減少시킨다. 그리고 이 方法을 客觀的 行動測定과 併行使用 한다.

行動修正(behavior modification)理論의 기본가정은 부적응 行동을 하나의 病으로 보지 않고 正常的인 行動과 마찬가지로 學習된 結果라고 보는 것이다. Eysenk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行動의 無意識의인 原因이나 억압된 감정 같은 것을 前提로 하지 않고 表面上

32) 이영덕, 정원식, 전개서, pp.137-150, 이성진, 학교에서의 행동수정, 서울, 배영사, 1972, 정원식, 人間과교육, 서울, 배영사, 1968, J.S.Wolpe and others(eds), The conditioning Therapie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5, 참조.

33) 홍성화, 전개문, p.81.

에 나타나 있고 관찰될 수 있는 行動에 主力을 두게 되는 것이며<sup>34)</sup> 人間行動 중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가의 限界線을 明白히 긋기는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건강한 行動과 病든 行動을 區別할 수 있는 明白한 限界性은 相對性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不適應 行動을 病으로 볼 可能性에서는 病的 行動을 하게 된 責任이 本人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醫學的 접근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病的 要素를 認定하지 않는 行動의 接近은 不適應의 行動이 잘못 學習되어진 結果이며 이 錯誤의 責任은 本人 自身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 學習되어진 不適應 行動을 修正하기 위하여서는 學習되어진 結果이기 때문에 學習理論에 근거를 두고 修正하려는 것이다.

學習理論은 pavlov, Watson의 古典的 條件反射 理論으로 부터 Hull의 制止理論에 영향을 받고, Skinner의 作動的 條件反射理論에 까지 動物의 行動을 實驗하여 學習理論을 定立하였다. 이 學習理論을 適用하여 不適應 行動을 修正하게 되는이며 Wolpe나 Eysenk가 처음으로 Behavior Therapy란 말을 使用하였고 스텐로드 大學의 Krumboltz가 Behavioral Counseling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行動修正은 學習理論의 強化의 原理를 適用하고 있는 데 이 強化는 肯定的 強化와 否定的 強化로 나누고 있다. 예를 들면 積極的으로 권장해야 할 行動에 대한 強化는 더욱 더 바라는 方向으로 學習되는 것이다. 行動修正은 否定的인, 除去되어야 할 行動은 一切의 強化를 주지 않기 위하여 無關心한 상태로 놓아두고 그 代身 肯定的인, 길러야 할 行動에 積極적인 強化를 주므로써 不適應 行動이 弱化되거나 消滅되게 하는 方法이다.

精神分析이나 自我理論의 接近은 보다 自己理解를 돕고 自己問題에 대한 통찰을 길러주어 自我實現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目標이다. 이러한 接近은 모든 患者에게 同一한 目標을 세우고 同一한 方法으로 다루기 때문에 많은 過程과 時間을 要한다.

行動修正에서는 不適應 行動을 社會適應의 失敗로 보기 때문에 相談의 目標은 適應의 行動을 잘 못할 때 ① 짚드시켜 주는 것 ② 強化시켜 주는 것 ③ 除去시켜 주는 것 ④ 弱화시켜 주는 것 등의 過程을 通하여 行動의 變化에 目標을 둔다.

다음은 行動修正에 사용되는 技術인데 다른 理論의 接近에서는 「理解」(understanding)가 充分條件이었으나 行動의 接近에서는 多様な 目標을 가지고 있으니 만큼 技術도 多様하다. 充分條件이던 「理解」가 여기에서는 必要條件이지 充分조건은 아닌 것이다. 좀 더 具體的으로 行動修正 技術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修正方法의 技術은 Bandura, Grossberg 등의 分類도 있으나 Ullman과 Krasner의 分類<sup>35)</sup>에 따라 記述한다.

34) H. Eysenk & S. Rachman, The Causes and Cures of Neurosis, Sandiego: Robert Knapp, 1965를 인용한 이영덕, 정원식, 전계서, p.138.

35) L. P. Ullman & L. Krasner, (eds), Case Studies in Behavior Modific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5.

① 主張的 反應(assertive response) : 不安과 분노를 적극적으로 表現하는 行動은 서로 兩立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個人이 自己의 생각을 主張할 수 있다면 不安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例를들면 主張的 反應에서 治療자는 來談者에게 商店에서 거스름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등의 質問을 하여 自己의 合法的 主張을 하게 하여 不安을 除去하게 하는 方法이다. 이와 같이 모든 불안, 공포를 일으키는 자극물에 아무런 要因이 없다는 合法的 理由를 明白히 指適해 주고 自己自身이 自己主張을 계속 반복하여 스스로를 납득시키도록 努力할 것을 要求하는 것이다.

② 弛緩反應(Relaxation response) : Jacobson이 도입한 근육 이완방법은 이완상태와 不安은 서로 兩立할 수 없다는 理論에 근거를 두고 있다. Wolpe는 이 이완반응을 利用하여 체계적 減感法(systematic desensitization)을 發展시켰으며 이 方法은 먼저 來談者를 弛緩하도록 하는 方法을 訓練시키고 이 이완상태에서 그에게 위협적 經驗이되며 不安을 조성하는 經驗을 그 強度에 따라 體系를 정해서 強度가 낮은 經驗으로 부터 점차적으로 하나씩 想像하므로써 減感시키는 方法이다. 즉 不安을 조성하고 이완반응으로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③ 負的施行(negative practice) : 不安을 조성하는 어떤 반응을 계속 強化시켰을 때에 그 反應을 하는 것이 苦痛스러워 지고 따라서 그 고통스런 반응을 중지하면 不快感情을 피하는 結果가 되기 때문에 正的 強化를 받게된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元來는 Dunlap이 사용했던 것을 후에 Hull의 制止理論에 의해서 정리해 놓은 方法이다. 이 負的施行은 말더듬, 손톱물어뜯기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習慣을 修正하는데 效果가 있다고 報告되고 있다.

#### ④ 消滅(extinction)

不適應行動은 現在 어떤 強化者에 의해서 계속 強化를 받고 있기 때문에 持續되는 것이 지 過去의 經驗 때문에 持續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의 行動을 持續시키고 있는 強化刺戟을 除去하므로써 行動을 變化시키고 부적응 행동빈도를 감소시키는 方法이다. 그러나 實際 學級事態나 임상상태에서 強化者(reinforcer)를 찾아내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強化者가 눈에 보이는 事物일 경우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숨어 있는 強化者를 찾기는 대단히 힘이 들수도 있다. 이 強化者를 除去하면 自然消滅된다는 學習理論에 기초를 둔 기술이다.

⑤ 選擇的 正的 強化(selective positive reinforcement) : 이것은 行動修正에서 가장 광범하게 使用되는 基本的인 方法中の 하나로서 카운슬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方向으로 反應했을 때 이것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正的인 強化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더 어려운 課業을 成就했을 때 強化를 줄수도 있고 새로운 行動型을 發展시키기 보다는 제

거시키려 한 때에도 使用될 수 있다. 이 方法은 作動的 條件反射 理論에서 말하고 있는 shapping의 概念에 基礎를 두고 있는 것이다.

⑥ 條件화된 回避反應(Conditioned avoidance response): 이것은 세가지로 分類될 수 있는데 첫째는 不安의 條件化 억제이다. Mower의 實驗으로 動物에 가벼운 電氣 쇼크를 주어 不安을 조성하게 하고, 動物이 어떤 動作的인 反應을 하게 되면 그 不安을 조성하는 전기 쇼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았다. 不安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피반응을 하면 不安이 감소되는 것이다. 이 方法은 神經不安性 공포증에 적용하여 效果를 얻을 수 있었다 한다. 둘째는 不安解除 反應을 形成하는 일로서 不快한 刺戟을 몇초간 주다가 어떤 신호가 나타나자마자 곧 그 자극을 중지하면 유기체의 不安을 解除하는 反應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不快條件 形成을 사용하는 方法으로 어떤 個人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자극물과 불쾌자극을 組合시키므로써 그 자극에 대한 과도 접근방법을 극복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은 특히 알콜중독이나 야뇨증 또는 갈 쓸때 생기는 수의 격려 같은 것을 치료하는데 성공적인 成果를 거두었다고 보고 되고 있다.

⑦ 模倣(modeling): 이 方法은 다른 사람의 例를 들어 對象者에게 提示해 주고 다른 사람의 경우와 같은 反應이 나타났을 때에 적절히 強化해 주기도 하고 카운슬러에게 질려주 고자 하는 어떤 行動을 發見할 수 있는 다른 例를 접어 넣을 수도 있다. 그리고 模倣된 行動에 대해서 적절히 強化를 해주는 것이다.

## V 要約 및 結言

이제까지 生活指導와 相談의 性格 및 세가지 接近方法에 대해서 言及하였다.

生活指導는 學生들 自身이 自立指導(self-direction)를 통해서 問題解決을 위한 合理的 선택의 助力過程이며 相談은 이 生活指導의 方法的 中核을 이루고 있다.

相談은 積極적·소극적 接近의 2立場으로 分類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相談의 2接近問의 比較

	積極적 接近	소극적 接近
目 標	적응상의 問題解決(人性的 成長, 環境의 補完)	人性的 再構成(人性的 장애점을 치료, 교정)
과정 및 방법	認知的 過程(Cognitive--) (認知的 方法, 情報提供등)	情意的 과정(affective--) (동기적 방법, 情緒解消등)
對 象	正常人	重症의 對象(離脫人)
問 題	教育的, 職業的, 경제적, 健康的 問題	人性的, 情緒的(心理的)問題

다음으로 相談의 세 가지 接近方法의 특징을 概括하면 다음과 같다.

相談의 諸接近 方法의 比較

	精神分析學的 接近	自我理論的 接近	行動的 接近
1. 기본가정 및 중요개념	○ Freud Dynamic DirveTheory ○ 억압, 不安	○ Rogers의 Growth Hypothesis ○ 自我實現	○ Classical Cnditioning ○ operant Conditioning
2. 相談者	○ 精神分析 理論에 밝은 전문가.	○ 풍부한 경험자 ○ 비전문가	○ 一般教師도 가능
3. 상담과정	○ 診斷 ○ 解釋 ○ 理解	○ 診斷이 不必要 ○ 評價가 不必要 ○ 理解가 충분조건	○ 학습이론 모델적용 ○ 理解가 필요조건

參 考 文 獻

李榮德, 鄭元植, 生活指導의 原理와 實際, 서울, 교학 도서주식회사, 1971.  
 金學守, 李潤樹(共譯), 生活指導의 原理, 재동문화사, 1977.  
 정희경(역), 變化하는 世界의 카운셀러, 교육출판사, 1971.  
 황정규, 行動診斷의 기술, 현대교육기술강좌29, 현대교육 총서출판사, 1971.  
 金基錫(역), 상담과 심리치료, 중앙적성연구소, 1972.  
 李相魯, 金濼採(공역), 來談者中心의 學校相談, 중앙적성연구소, 1972.  
 변창진의(공역), 學校相談의 事例研究, 중앙적성연구소, 1972.  
 이장호, 이관용(공역), 카운셀링과 심리치료의 理論과 실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72.  
 Bandura, A., Principles of Behavior Modification, N.Y. : Holt, 1969.  
 Hall, C.S.&Lindzey, G., Theories of Personality(and,ed), N.Y. : Johnwiley & Sons Inc.,  
 1970.  
 Krumboltz, J.D., Revolution in Counseling, N.Y. : HM, 1965.